



12일간의 뜨거운 여행 -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와서

김성연 장로, 김민준 집사, 이연주 집사,
 박신역, 지민영, 김안나(영년1부), 안상역(David), 김동역(Tommy)

1. 콜롬비아에 도착: 7월 30일 토요일 새벽 5:30 비행기로 출발한 선교팀은 두 번의 경유지를 거쳐 당일 오후에 콜롬비아 Cartagena (까르타헤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콜롬비아에서 처음 한 경험은 허름한 시멘트 내벽의 YWAM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의 2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까르타헤나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예뻐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주일예배후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월요일부터 있을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취와 일의 양에 초점을 맞추면 안될 것이고, 우리 중심만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열심히 일할 손과 발만 준비되어 있다면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많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바뀌게 될테니까요. 우리 팀원들 삶 속에서 선교가 좀 더 자연스럽게 가까운 것이 되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One time event가 아닌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2. 중고등학교와 빈민지역 학교 방문: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까르타헤나는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로, 한 해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더불어 부정부패로 인해 못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살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못 배우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페이지에 계속

9월호 차례

- ▶ 12일간의 뜨거운 여행
- ▶ 권두언
- ▶ 당회보고
- ▶ 해외선교위원회의
- ▶ 국내선교위원회의
- ▶ 교육위원회의
- ▶ 교인 위원회의
- ▶ 은사 공동체
- ▶ 마리아 여성교외
- ▶ 남선교외
- ▶ 부부영년부
- ▶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와서
- ▶ 그루터기 영년2부
- ▶ Sunflower 유년주일학교
- ▶ Ransome Youth Group
- ▶ 클로버
- ▶ 행사 광고
- ▶ 교우동맹
- ▶ 새교우 환영반
- ▶ KCB 갤러리



Church is 'Fun'

이영길 담임 목사

몇년전 우리 교회 수양회 주제가 ‘재미있는 교회 생활’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양회에 참석하셨는데 아마도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서 큰 기대를 안고 참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년에 한번 새로운 제직분들을 교육하는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 은사(gift)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 F**(free, 거저 주신다):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어집니다.
- U**(unique, 독특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 N**(nurture, 양육할 수 있다): 주어진 은사는 늘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미있는 교회 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독특한 은사 잘 사용할 때 fun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작년 ECC완공후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성경공부반, 구역), 은사 공동체, 3세대 공동체(쉐마 공동체)입니다. 세 공동체 모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은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로 재미있는 교회 생활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잘 개발하시기 위해서 같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은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FUN!!!”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1. 흥동욱 장로님이 현재 신학교에 등록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 교회 장로직을 8월 21일자로 사임하셨습니다.

2. 1996년부터 반주자로 봉사해 온 손민수 교우가 Michigan State University 에 직장을 갖게 되어 8월 14일자로 사임하셨습니다.

3. 2부 예배전 준비 찬양간: 지난 6월 11일 제직회때 “2부 예배 전에 찬양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논의 한바, 예배 전반(주보 및 예배 순서 등)에 관한 Task Force를 구성함이 바람직하여, 9월 당회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Task Force 준비위원으로는 흥경자(장), 김영범, 안태준, 박진옥, 안은신, 정광근, 박신혁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첫 모임은 흥경자 장로님이 주관하고, 그 이후에는 흥경자님이 위임한 분이 이 모임을 계속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4.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5시간) 2명 이상의 Baby Sitter가 필요함이 요구되어, 교육 1부 위원장 박영철 장로님과 김성현 장로님이

부부청년부와 권사회와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5. 루이빌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정하여 지난 6월에 PILP(우리 교회가 200만불 Loan을 받은 미국 장로교 총회 은행)에 \$150,000을 감사하게도 정기 적금(CD)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7,000을 6월말에 추가 정기적금하여 우리 교회를 지정하여 적금된 금액이 Loan 금액의 50%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0.25%의 rebate를 받던 것에서 7월부터 0.5%의 rebate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로, Loan 받은 금액만큼, 즉 200만불이 적금되면 1%인 2만불이 우리 교회로 rebate되어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정기적금하시는 분에게는 적금 기간에 따라 본인에게도 일반 은행과 같이 이자가 붙습니다.

PILP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용자위원회(안태준 장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선교위원회 Nicaragua Mission 2011

다음달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Nicaragua 단기 선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Primera Iglesia교회의 빼나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른 두 멤버가 함께 떠날 예정으로 있으며 그곳 현지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아이들을 위한 VBS를 펼칠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콜롬비아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어지는 또 한번의 선교인지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기선교팀으로 떠나게 될 단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사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원: Pastor Pena, 최연일, 최송자, 한경이, 이선영, 김동규, 이정민, 채진병, 김애리, 문영진(Tennessee), 윤영중(Seattle), kymaris, Sonja, Rosene Kim.

- 9월 24일(토) 니카라과 도착, 숙소 배정 (혹 도착이 오전이면 저녁 도착예배)
- 9월 25일(주) 은혜교회 주일 예배 및 사역
- 9월 26일(월) 산성교회 사역, 교회 지도자 세미나 (제일교회)
- 9월 27일(화) 생수의 강교회 사역, 세미나
- 9월 28일(수) 하나님의 은사교회 사역, 세미나

- 9월 29일(목) 전 구선교사와 사역, 세미나
- 9월 30일(금) 니카라과 한인교회 사역 (대상-선교사 가정과 한인들)
- 10월 1일(토) 니카라과 출발

일정은 올해 개척한 교회인 산성교회와 생수의강 교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고 세미나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금요일 사역은 작년부터 선교사 가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전체 20가정이 넘음) 현지인들과 함께 진료받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미안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 일정을 한인 선교사 가정과 한인들에게 배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는 아예 의료선교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음으로 인해 매해 우리가 들어오기를 꽤나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몇 주후면 떠나게될 Nicaragua 단기선교팀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땅끝까지의 전도사명을 위해 오늘도 쉼없이 정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숙소는 Hotel Campo Real로 정하였고, 약품목록등 구비서류가 예년보다 한층 까다로와졌기에 아마도 최연일 장로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국내선교위원회

6월 25일 뮤지컬 토티 워크샵 콘서트

지난 6월 25일저녁 국내 선교위원회의 주최로ECC의 어린이 예배당에서 음악회 형식으로 뮤지컬 “토티” 이 (작곡: 조나현, 작사: 이웅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토티를 연기한 이미혜 자매, 멋진 보아스의 최현구 집사님, 토티를 격려하는 시어머니를 연기한 김애리 자매, 오르바 역의 이혜승 집사님, 베들레헴 사람들의 자상한 리더를 연기하신 김지수 사모님, 더운 여름 저녁에 태양을 등지고 뜨거운 조명을 손수 움직이던 조명팀의 황동준 집사님과 정재원 집사님, 기타의 강경진 형제와 최다함 형제, 또 음향팀의 박신혁 형제와 이봉욱 집사님, 안내와 여러가지로 수고한 청년 2부 리더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이 감동이었고 사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8월 25일 오아시스 카페 음악의 밤

브루클라인의 샘터가 되고자 시작한 오아시스 카페 음악의 밤이 벌써 세번 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직장파 학교에서 연결이 되어 엄청난 음악인들이 오아시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9월 29일에는 오후 7시30분에 오아시스 카페에서 “아이레스 데 아르헨티나” (Aires de Argentina)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버클리 음대의 졸업생들과 대만, 한국,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탱고음악과 미국의 사랑노래를 연주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간 교실은 7학년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도 안하고 관심도 안보일 것이다, 질문도 별로 안 할 것이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닐 것이다, ... 아마도 내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까지 집중해주던 그 눈빛과, 영적인 질문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 아이가 진지하게 손을 들더니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전형적인 빈민지역에 위치한 Luz y Verdad 학교의 Hugo 교장선생님 부부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스천 마인드로 교육시키는 것. 어려서부터 정직한 마음을 가르치고, 읽고 쓰는 법을 배워 부모 세대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세대를 키우는 것. 그 꿈은 정부를 비롯한 주변 많은 환경으로부터 헐박과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지금까지 소중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학교의 역사는 간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례로 학교 놀이터를 위한 땅이 필요했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기도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15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

니다.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귀한 이야기가 방문했던 네덜란드 리포터에 의해 유럽에서 방송이 되었고 도네이션을 받아 정말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건물 지붕을 지어 주고, 또 다른 나라 봉사자들이 와서 다른 건물을 지어 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 어린이 선교:

시간이 지나도 그 곳 아이들은 오래도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려, 축복해주려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었습니다.

한번은 트럭을 타고 근처 Alto Roma 지역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내려다 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웬만한 선진국 대도시의 풍경과 다를 바 없었지만, 우리가 방문한 산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고 산길을 오르며 집집마다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face painting을 해주고, 그룹을 나누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큰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남미 각국에서 DTS를 온 대학생들이 모여있었는데 그들과 섞여서 그룹을 지어 시장 곳곳에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U-20 월드컵이 한창일 때라 한 가게 자리를 빌려 스크린을 설치하고 축구 경기를 상영했



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볼 때, 자연스럽게 한 명씩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하

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힘을 모두들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대학 선교:

세 곳의 대학교 (Universidad de Cartagena, Universidad St. Buenaventura, Universidad de Rafael Nunez)를 방문해서 진로선택, 재능 계발, 경제흐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현주 집사가 올바른 진로선택에 대하여, 김성현 장로는 콜롬비아의 경제상황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그곳 학생들과 저희 선교팀간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YWAM소속 청년들이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곳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강의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특히 교수님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에 대한 소문이 나서, 마지막 날에는 여러 대학의 경제학교수 열여섯분이 모여 김성



현 장로와 조찬모임을 가지며 콜롬비아 경제상황에 대한 토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5. Bocachica 섬, 그리고 화장실과 바닥 공사:

금요일에는 Cartagena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곳에서 모터보트로 30분 정도 거리의 Bocachica 섬에서 4일을 보냈습니다. 그 곳의 풍경을 보면서 '못산다' 보다는 '자연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고, 바닷가에는 늘 아이들이 수영을 하며 놀고 있고, 더운 날씨 탓인지 사람들은 집 밖에 나와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돼지와 개, 닭들이 섞여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Bocachica의 YWAM 선교센터는 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독일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1년 프로그램으로 해외봉사를 온 단원들이 staff으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섬에서는 마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1인당 1일 1통의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물로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미리 떠다 놓은 바닷물을 부어 물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팀은 주로 화장실 공사와 바닥 공사를 도왔습니다. 숙련된 실력의 현지인 일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생겨서 기뻐하시는 집주인 가족들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



니다. 계획대로 화장실 2개와 바닥 2개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Children's feeding center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face painting과 arts & crafts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하나님의 사람들:

단기선교 여행 중에 우리 팀을 헌신적으로 서포트해 준 YWAM 청년 리더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의 꿈을 품은 청년들도 있었고, 남미 각국으로 미션트립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면 삼삼오오 모여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삶으로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일구어가던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모니카 선교사님과 대

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롬비아로 오시기까지 인도하심, 세 아들 홈스쿨링 이야기, 남미 미션트립 간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이야기 도 나누었습니다. 같은 말 다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삶으로 헌신하시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증명하시는 분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진심이 깊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귀국을 위해 Cartagena의 공항에 갔습니다. 뜨거운 12일간의 여행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했고 누군가는 떠나야 했습니다. 배웅을 나와주신 선교사님들과 자제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짐은 너무 아쉬웠지만,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곧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지만, 어디에 있던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이 주변 가족들

과 교회 교우분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44:8)



교육위원회

엣그제 시작한 것 같은 소그룹 성경공부도 뒤돌아 보니 어느덧 일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여러 염려도 있었으나, 목사님과 고 강장로님의 확고한 신념, 또 많은 분들의 열의와 관심으로 당초 네 반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일곱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성경공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말하고 실천하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각자가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아래와 같은 유익을 줍니다.

1. 말하는 성경공부: 각자가 예습한 성경말씀을 주제별로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나눔으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생깁니다.
2. 듣는 성경공부: 반 원의 발표시 듣는 태도를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입장과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됩니다.

3. 기도의 활성화: 말씀을 나누는 중 나타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서로가 공유하므로, 각자의 영적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됩니다.

4. 섬김과 봉사: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고, 이를 각자의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현대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아집과 집착, 그리고 고정 관념이 너무 강하고, 앞뒤가 딱 막히어 대화하기가 싫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매력 없다”고 한답니다.

우리 모두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남녀와 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말씀을 나눔으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는 정말 멋지고, 또 매력있는 종교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베드로 반 인도자 권 복태 집사

교인 위원회

세례식: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유아세례자: 김승주(김승호/이혜승), 백인수(백승한/손주연), 문서영, 문예영(문현석/정하나)

성인세례자: 김대성, 김민경, 이상필, 이재상, 허하나

성인세례간증문 1

김대성 교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모와 함께 잠시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모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따라 하고, 또 집에서는 고모가 시키셔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 드렸던 습관과 기도들을 제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저를 주님 품으로 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뒤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한번도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 17세가 되기 한 달 전쯤,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아버지께서 대학원시절 친구분이 가까이 계시는 미국 보스턴 쪽으로 제가 와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2004년 3월 미국으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18세도 채 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저는 고모께서 전에 주신 “쉬운 성경”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도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주님에게서 멀어져 살아서 인지, 저는 미국 와서 처음 나가게 되었던 그 교회에 결국 조금 나가다가 다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힘들 때만,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할 때만 없드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저만의 의지로 하려고 하며 살아왔고, 그럭저럭 고등학교도 다니고 하였지만, 신앙생활로써는 전혀 활동적이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2009년 봄, 저는 그전 제가 살던 동네에 있어서 몇 번 가보았던,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청년 1부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홀로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나쁜 것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죄 지은 몸으로 교회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아주 좋으신 청년 1부 목사님, 동역자 분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씩 저는 저의 신앙심과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었고, 지금은 청년 1부 찬양 팀의 멤버로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죄를 항상 용서해주시고,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그전과 달라질 삶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책임감도 더욱더 강해지겠지만, 저를 지금까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주셨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스텝을 밝기 원합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식으로 인정받고 나아오는 세례식하기에 정말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또한 매우 기대, 흥분이 되고, 이 모든 세례과정을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인세례간증문 2

이상필 교우



Being a Christian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faith to overcome major obstacles and hardships during this past year. It is true, I did not believe in God and the Church before joining The Korean Church of Boston. My whole life I believed Christians or other religious groups were created by people who feared death. I believed these people were trying to come up with excuses and lies in order to make a profit on people's fears. It is quite ironic I had such beliefs because my whole life I have been educated and raised in a country where religion was heavily taught in schools.

I was born in South Korea but my parents moved to Asuncion, Paraguay when I was one month old. Paraguay, like most South American countries, has a strong catholic influence. For instance, every morning in school, we would pray the "Hail Mary" and end school with the "Lord's Prayer". We would have a religion course where we would study the Bible and have "Misa (Religious Mass)" every Thursday. We were required to memorize the catechism during exams and the school prepared us for our first confession and first communion. Even with all these I was never really into God or the Church.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 moved to the US for college. I refused to go to church with friends because I really did not believe in anyone. Years passed and I met my wife and had two beautiful kids. While raising my kids I never bothered teaching them about the Bible and God because to me these were all lies. The turning point in my life began when my father in-law became sick.

My wife was depressed since she could not do anything about it so she asked me to go to church with her. She knew I did not like this idea so she tried to convince me it was good for the kids. I accepted it and followed her to church. We chose the Korean Church of Boston because a friend's of her recommended it. We joined 부침 and met so many nice people. I was surprised at how nice and understanding the people were at church.

We joined the prayer meeting from 부침. This is when things started to get interesting. My father in-law was completely paralyzed from Guillain-Barre Syndrome but right after joining the meeting and began the prayers, he started to get better. He stayed on the ventilator for almost seven months and suddenly his lungs started to recover.

It was really a miracle. After weaning off from the ventilator, he started to move his legs, neck and arms. This is when I felt this really weird but warming feeling inside me. I came to realize it was God's message to me, to believe him, to have faith in him. I believe God wanted to tell me I was not alone; that we were not alone. I was suddenly changed.

I could feel God's blessing. I started to accept the Bible as God's words and realized I needed to learn from his words and teachings. From the Bible I learned how lucky we were that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even sacrificed his own son, Jesus Christ, to save us. "God, thank you for never giving up on me and thank you for showing me the right path to salv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은사 공동체

하늘소리 / 김준구 집사

저희 하늘소리는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의 비전을 실천하면서 우리 전통 가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문화를 선교의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2년전 집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도 없어 총영사관과 각 대학에서 북, 장구, 징, 팽과리등을 1개씩 빌렸다 반납하기를 반복하며 "덩딩 덩따구따"만 치는데 몇개월씩 소요되는등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열네명의 팀원과 5번에 걸친 공연의 관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소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스톤 한인교회의 소모임 은사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즈음에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무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락이 좋아 이를 신명나게 치고 싶으신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탁구 동호회 / 권복태 집사

지난 6월 발족한 탁구 동호회는 매월 3째 일요일 2부 예배후 친교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보자를 위하여 연습기계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운동화와 라켓만 준비하고 오시면 lesson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탁구는 단위시간당 운동량도 많을 뿐 아니라 실내 운동이므로 과격하지도 않아 몸에 무리가 오지 않으며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가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탁구로 가족들의 건강과 더불어 날렵한 몸매도 함께 유지하지 않으시렵니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권복태 집사 (781)408-9430이나 최창렬 집사 (508)393-4548, 혹은 심윤보 집사 (339)237-0729 로 연락 주십시오

서예 동호회 / 김현지 권사

지난 5월 정확실 장로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좋은 붓을 잔뜩 사다주시면서 서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초보부터 시작하자고 하시기에 오랫동안 생각중이었던 서예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사모님, 이 은, 엄인숙 집사님등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7월초에 있는 붓과 먹, 화선지, 벼루 등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모여 본 것이 소문이 나서 8월에 6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예반은 초보이지만 대단한 열심으로 모일 때마다 놀랄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회원도 모집하고, 한글반, 한문반, 묵화반 등으로 나누어 전사회도 하자는 좋은, 즐거운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함께 모여서 나이, 성별없이 모여서 감추고 잠재우고 있던 재주를 발휘하여 보길 원합니다. 이 서예 동호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30분에 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현지 권사(508.340.8491)께 연락바랍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상반기 활동

홍무 김영순 집사

여름이 시작되는 듯하더니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지난 2월 2011년 새 임원단으로 시작한 마리아 여선교회의 활동이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며 마리아 여선교회의 활동을 성도님들과 나누며 감사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5세 이상의 여자 성도님들을 회원으로 하는 마리아 여선교회는 해가 갈수록 2부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회원과 임원으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2부에 출석하시면서 이른 아침 1부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단 여러 분들께서 한 달씩 맡은 순서를 좇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 운전해 오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주일마다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고경아 회장님, 부역에 늘 들르시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성도님들과 고문님들, 예배 후에 다과를 하시며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상록회 어르신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등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훈훈함 속에 있는 기쁨이 주일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지난 사순절 (3/10 ~ 4/23) 새벽 기도 때는 집사회와 더불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기도가 마치면 커피와 토스터를 준비하여 베이글을 구워내 주신 임원단들의 수고로 삼삼오오 모여 기도와 삶을 나누셨던 성도님들이 직장으로 향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며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들과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에는 청년부 식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굴도 잘 기억 못할 시간들만 흘렀을텐데 김치를 무치고, 양념장을 만들며 국과 밥을 퍼 주면서 청년들과 잠시나마 만나 격려와 감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셨던 노하우뿐 아니라 그 날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 주셨던 북서2구역 식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에는 식품바자를 하였습니다. 뉴욕 농장에서 갓 배달된 된장, 농협 고추장과 젓갈류, 각종 모종을 비빔밥과 함께 판매하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발효를 계속하는 된장을 관리하느라 진땀을 뺀 임원들과 토요일 밤 늦게까지 비빔밥 재료를 준비한

마리아 여선교회 선배님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맡으신 모든 분들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지면을 적어 내려가며 그 때가 아득히 그리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옆의 분들을 통해 전달해 주신 사랑과 격려의 포옹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5개월의 시간을 앞에 놓고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회장님 이하 임원단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맡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늘 예수님의 은은한 향기가 넘쳐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마리아 여선교회 선배님들, 고문님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빕니다. 늘 그리워 주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회 정기총회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17일 오전 10부터 오후 3시까지 필그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매년 9월에 있었던 연합선교 대회가 올해에는 “평신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열리는 비전 컨퍼런스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선교대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선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갈 귀한 신회장단 선출에 여선교회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1년 9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
- 대상: 동북대회/동부한미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산하 한인교회 여성
- 장소: 뉴저지 필그림 교회 (비전 컨퍼런스 장소)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Tel: 201-843-2222
- 문의처: 김한나(781-608-6006),

남선교회

방경남 집사

여름 기간 동안 남 선교회는 큰행사보다는 봉사과 후원의 기간이었습니다. 집사회 주관의 교회 청소에 협조하여 주일에 외관 청소를 하게 되어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17일까지 ‘키르키즈스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이곳 보스턴을 방문하였습니다. 보스턴의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이들을 대접하였는데, 우리 교회도 16일 점심을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대접하고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보스턴 방문의 기념이 될 수 있는 Bruins 티셔츠를 준비하여 선

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골프대회에서 모아진 모금액을 콜롬비아 선교에 후원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남선교회는 골프대회를 갖고 교체와 친목을 나누며 이번에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스턴 한글학교’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부청년부

평광근 집사

안녕하세요, 부부청년부입니다. 저희 부부 청년부는 공식적으로 7월 첫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방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없는 아쉬운 마음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6월 11일 Castle Island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피크닉이 날씨 관계상 야외 활동이 불가능하여, 집을 오픈하여주신 한 가정에서 실내피크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흔쾌히 초대하여주신 두분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교제를 통해 부부청년부 회원들간의 돈독한 정을 듬뿍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회장님댁의 마베큐 초대로 모든 부부청년부원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부부청년부를 향한 회장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방문, 여행 등등으로 많은 분들께서 보스턴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방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심신의 재충전을 하고, 저희는 8월 20일 월례회로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고, 8월 28일 주일 찬양을 위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한마음으로 모아 찬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부부청년부의 가장 큰 기쁨중 하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새생명을 같이 축하해 주는 일인데요,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셨던 가정의 쌍둥이, 그리고 세 가정의 둘째들로 다가오는 가을 5명의 새식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걸 느끼고 있는데요,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감사하며 큰 영광 돌리는 모든 부부청년부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와서

김한나, (청년1부)



선교 떠나기전에 비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 망설임없이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교육선교라는 타이틀과 대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나로서는 이번 선교는, 날 위한 선교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 위해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 아이들이 관심있어하는 미국에 대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심과 higher education 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인해 Colombia 대학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로인해 그 나라를 이해하게 하시고,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해 대학안에서의 부흥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하셨다. 콜롬비아에서 여러 대학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공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왔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그 와중에 학생들과 학교가 마음이 열려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수월해져 그 대학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콜롬비아라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박신역



누군가 콜롬비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거나 한 일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한 일들은 금방 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선교사님들, 청년 사역자들의 눈빛은 오래도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미소와 눈빛과 헌신과 삶을 나누고 싶은데 말로 다 형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12일 일정도 덤

고 고생스러웠는데, 그 곳에서 5년 또는 평생을 섬기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비전과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집중하던 눈빛과, 평안, 감사,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시장 한 복판에서의 노방전도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현지 학생들과 우리 팀원들이 섞여 서너 명씩 그룹을 지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청년이 아저씨 한 분을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했습니다. 준비도 안되어 있는 채로 열렬결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하는 저도 듣는 분도 통역하는 형제도 점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 분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뜨거운 은혜 안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이분을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자신감이 샘솟기 시작했던 것은,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주



단기선교를 앞두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팀원들의 하나됨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12일간의 여정을 마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우리 안의 사랑에 대해 믿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딸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기를 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바랬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와 닮은 꼴인 콜롬비아의 현실과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인생과제를 놓고 기도하던 일들이 저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모난 성격이 없어 다 등그스름한듯 싶으면서도 불수록 각자의 개성 만점이었던 팀원들 한분 한분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소명은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몇몇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2일간의 뜨거운 여정의 파장 때문인지 소명은 좁은 길이라는 자못 비장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목록이라면 늘 바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의미없이 살지 않기입니다. 꿈결같이 커다란 목표보다는 한달과 일년의 목표를 하루일과로 일구어 갈 때 저와 같은 한 보스토니아도 저를 향한 주님의 뜻에 조금 더 부합하게 되겠지요.

안상역, David Han



The first observations that came to mind as we sat in the van, besides the city's apparent lack of traffic rules, were the buildings - run down and surrounded by metal fencing. From the stolen glances I could see from inside the van, I saw families sitting at the entrance of each door simply letting the day go by. Upon reaching the Youth With A Mission (YWAM) base, we met the team - a dozen or so students my age who had already devoted their lives to God. The majority of my spiritual conversations took place with the YWAM members, who would share their stories and aspirations during meal times or taxi rides. Many wanted to go abroad to countries like France, India, and Russia after they've finished their educations in Colombia.

At the center of each of their grand dreams was God. I hardly understood how blindly - others would phrase it as "faithfully" - my Colombian peers put their trust in God. Perhaps, I thought. Perhaps God really did give my YWAM peers visions to do great things with their lives, wherever they may go. Perhaps there is a plan

for all of us. The thought is definitely comforting, seeing as though we really cannot do too much by ourselves. And all we need to do is trust in God - blindly or faithfully, whichever we decide.

시민형



The images from the trip, the people I met, the hot and humid weather of Cartegena, the houses in Bocachica, the YWAM leaders, Missionary John and Insuk, the children, and the delicious food encircled my conscious mind. Through the Colombia Mission trip, I was able to reconnect with my faith through experiencing the passion for Jesus with the YWAM leaders and the missionaries in Colombia. I met students who truly followed God's calling and dedicated their life for God. I met students of Colombia who were so eager to learn about us and our lives. However I also met people who were desperately looking for help and seeking for salvation. This trip really opened my eyes to a new level of faith, and the YWAM leaders have shown me how to live for God. I wish that every young student can experience the miraculous trip in Colombia.

김동역 (Tommy Kim)



Colombia has changed me to say the least. During our trip, we were hosted by a group of young adults in the midst of their DTS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They were amazing people but what struck me most was their devotion to God. Never have I ever been in the company of ones whose faith was so unshakable.

Their devotion was on an entirely differ-

ent level. For example on our first day, Yris and I struck up a conversation. We would ask the typical questions: How old are you? (28), Where are you from? (Venezuela) etc. Then I or Hanna asked the question, “Why did you come to Colombia?” She answered, “God called me”. I was stunned. I assure you nobody has ever answered one of my questions with “God called me”. It was then that I had begun to realize that I was in the presence of some incredibly religious people. There were many

moments like thi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trip. Moments like this occurred frequently enough to make me think. Eventually, I had to revisit my faith (or lack of faith). Thus, began my questioning of my questioning of God.

그루터기 청년2부



저희 그루터기 청년2부에서는 올 여름 말씀공부를 더욱 뜨겁게, 그리고 청년2부 형제 자매간의 교제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성경 교향곡 (The Symphony of Scripture; Mark Strom 저)’ 을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두챗터씩 함께 공부하며 성경의 맥을 잡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주 청년부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챗터를 발표하면서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말씀공부를 서로 독려하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는 기도와 찬양 모임을 통해 (6/17, 7/15, 8/19)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향을 맞춘 우리 청년 2부 회원들은 올 여름 여러가지 다양한 outdoor activity를 통해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ovie night (6/10), Independence Day Firework (7/4), MFA exhibition 관람 (8/6), Picnic at Lynch Park, Beverly (8/13), Bowling Tournament

(8/27), 등등 학업에서 잠시 벗어난 회원들이 함께 더 친해 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Lynch park에서 있었던 피크닉에서는 자연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BBQ 점심을 먹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추억의 게임도 했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2부 회원 중 김종현 형제가 7월 30일 뉴욕 은혜교회에서 화축을 밝혔고, 박신혁 형제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콜롬비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2부를 위해 점심식사 준비 등으로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우시는 손길과 베푸는 마음에 저희 청년2부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오후에 이어지는 성경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청년 2부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unflower 유년 주일학교

이은주 집사

이번 여름은 우리Sunflower어린이들에게 바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CONNECT WITH JESUS”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4명의 준비된 영혼들을 참석하게 하였고 약 54명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중 24명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있는 학생들로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 모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 오신 박진호 (Timothy Park) 전도사님의 사역과 영적인 지도함 밑에 성령의 열매, 즉 여덟가지의 복(Turning your heart toward God)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로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새학기를 맞아, 저희 Sunflower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선생님들과, 특별히 찬양팀으로 11시에배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있는 (싱어,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은주 부장 집사님이나 박진호 전도사님께 연락바랍니다



중고등부

황동준 집사

한해동안 6학년 선생님이로 수고하신 김한나 집사님이 여선교회 대외 활동상 바빠진 스케줄로 인해 지난 7월 중순에 사임하셨습니다. 김한나 집사님은 6학년 학생들을 Sunflower Sunday School에서 Ransom Youth Group으로 transition할 때 수고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저의 중고등부를 찾아주시면 환영합니다. 김한나 집사님 후임으로 김희수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오래전 Sunflower 선생님이로 수고하셨고 이제는 6학년 선생님이로 수고 하시겠습니다.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않고 최선을 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최고!

7월에는 매년마다 기대하는 sixflag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총 26명의 학생들과 6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특히 한국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재미있게 단합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과 학생들은 무서운 놀이기구만 골라타고 날씨 또한 매우 덥고 찌는 하루였지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교회 도착한 후 피자를 저녁으로 먹으며 하루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6월에는 매년 Gordon Conwell 학교에서 주최하는 농구대회에서 여학생들이 4년째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른 년도와 달리 이번에는 트로피를 나누어 주었고, 이 트로피는 Parlor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도 열심히 겨루었지만, 아쉽게도 결승

8월 셋째주에는 청년 1부와 함께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드리고, 그날밤 교회에서 lock-in을 하였습니다. 총 28명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여러 게임을 하면서 긴 밤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형, 오빠, 누나, 언니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좋았고, 또한 청년 2부도 나중에 합동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협력하여 큰 기둥이 되어 우리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찬양을 맡아주신 정한진 전도사님과 기도시간을 이끌



어주신 이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준비해주신 중고등부 PTA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8주동안 있었던 leadership



training을 마쳤습니다. 이 training은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는 준비과정 course입니다. 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여러 곳곳

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training에 졸업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채원, Pearl Choi, Ivey Choi, James Park, Angela Park, 조여림

마지막으로 이번 7월, 8월에는 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저의 중고등부는 반을 변경하여 여러 학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지만, 선생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중고등부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매번 교사가 필요해서 모집을 했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죄송하면서도 부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나” 말씀들이 시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이 있지만 헌신하시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황동준 집사나 정한진 전도사님께 말씀드려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은 여러분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교회행사

-니카라과 선교 파송 예배(9/11)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집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 9월 11일(주일) 파송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9월 17일(토) 니카라과 선교에 가져갈 약품 포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직 안수식 (9/18)

9/18(주일) 제직 안수식을 가집니다. 이번 제직 안수식에는 올해 신입 장로로 2분(김영범, 박신영), 신입 안수집사로 10분(강혜정, 김현주, 방경남,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주용, 유승오, 한정인, 황동준)이 안수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쉐마의 밤(9/24)

9월 쉐마의 밤이 오후 6:30분 ECC 채플에서 열리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9/24- 10/1)

올해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Primera Iglesia 스페니쉬 교회와 함께 펼치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성찬 주일(10/2)

10월 2일은 세계 교회가 모두 함께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성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알림:

1.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니카라과 선교지에 가져갈 모자, 돋보기, 썬그라스를 모집합니다. 안쓰시는 모자, 돋보기, 썬그라스를 기증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9월 11일(주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예배위원회: 예배 위원회에서는 동시 통역으로 봉사할 교우님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박성준, 안은신 집사께 연락 바랍니다.
3. 청년 1, 2부 점심식사를 위해 자원 봉사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sign-up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

출산: 6월 중순: 류승렬/임윤아 집사 가정에서 득남(재범/Nathan)하셨습니다.

평신도와 선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16:9)

장소:
뉴저지 필그림교회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201-843-2222

일시:
2011년9월15일(목)-17일(토)

강사:
이승만목사, 김영철목사, 김인기목사, 양춘길목사, 고태형목사, 김광수목사, 허봉기목사, 엄순희목사
이규중선교사, 박남은선교사, 이영호장로, 김동석목사, 한희자목사, 이정인집사

연락:
지역:
이동구장로(201-310-18950), 이미애집사(914-843-1696), 윤석래장로(201-658-2725)
전국:
김영철총무(708-439-0233), 김한나총무(781-608-6006)

주최:
미국장로교 한인 총회 남선교회 & 여선교회

모든 문의는 남여선교회 전국 연합회 총무들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http://nkpm.org> 에서 등록용지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 총무: 708-439-0233 kimyoungchul@gmail.com
-김한나 총무: 781-608-6006 hannakcho@yahoo.com

당신의 컴퓨터는 안전합니까?

스팸과 피싱에 대한 기본 대책상식과,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김연주 집사

스팸(spam, 순화 용어: 쓰레기편지)이란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한다.

피싱(Phishing)이란 Private Data(개인 정보)와 Fishing(낚시)가 합쳐진 신조어이며 일반적으로 사기꾼 또는 해커들은 교묘히 위장된 피싱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금융 정보 (또는 어떤 종류이든 해커가 필요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다.

<스팸/피싱등 악성 이메일들의 유형>

1. 단순 광고성 스팸메일
2. 사적인 편지로 가장한 스팸메일
3. 가입한 사이트의 메일 서버 관리자를 사칭해, 비밀번호나 주소록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피싱메일
4.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보낸 것 처럼 위장된 피싱메일 등

<스팸과 피싱에 대한 기본 대책>

1. 모든 이메일을 의심하라 - 이메일 확인 시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한다.
2. 첨부파일과 링크에 주의하라 - 메일 내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꼭 열어야 할 경우 확인 후 안티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한 후 열람하고,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는 가급적 접속을 하지 않는다.
3. 이메일이 무언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잠시 멈추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보라.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사람로부터 내 이메일 계정으로 부터 스팸이메일을 받는다는 불평이 있거나 내가 모르는 임의의 주소에서 전자 메일을 돌려보내다는 메시지(Bounced emails)를 받기 시작하면, 또는 어느날 갑자기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면,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비밀번호가 너무 간단하거나, 스타벅스같은 공공 장소 또는 도서관 컴퓨터 같

은 공용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체크하는 경우, 또한 스팸 메일이나 피싱 메일같은 악성 이메일에 당한 경우 이런 이메일 계정 해킹의 피해자가 된다.

1. 안전한 PC에서 이메일에 로그 인한 다음, 설정(Setting)을 확인한다. 자신도 모르는 서명(Auto signature)이 추가되었다든지, 다른 모르는 주소로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Auto forwarding), 자동으로 파일을 첨부하는 설정등이 되어있다면 설정을 삭제한 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확인한다.

2.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6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개인 신상정보와 관계가 없는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

3. 상황에 따라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이메일을 지우라고 경고한다. 보낸 편지함 (Sent folder)에 가서 해당 이메일이 보내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방법도 있다.

4. 컴퓨터에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실시간 감시 기능을 사용한다.



새교우 환영반



이 영 길
담임 목
사 님 과
함께 하
는 새교
우 들 과
의 만남
의 시간
인 새교
우 환영
반이 지
난 7~8월에 3주에 걸쳐 아침 10:30-11:30 에 교회 Parlor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간단한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 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이번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가정은 이강민/손정은 교우, 이문희 집사, 유정수/정은화 교우, 정성원/변수연 교우 가정입니다. 짧지만 4번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회 생활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교우님들의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강민/손정은 부부: 이강민 교우님은 부인과 결혼 후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며 B.U에서 Dental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슬하에 서희(Kaylee)라는 1년 6개월 된 예쁜 따님과 장모님, 그리고 처남까지 함께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부부 청년 소속이십니다.



-이문희 집사님: 2부 성가대에서 전공(작곡)을 잘 활용 하셔서 엘토에 자리잡고 계시며, 어려서부터 받아들이신양덕분에 두 자녀를 키우시며 굳건히 서게 하셨으며 지금은 체험적인 믿음으로 보는 이들을 든든하게 합니다. 중앙 2구역에 속해 계십니다.

-유정수/정은화 부부: 4월 한국에서 하바드 대학으로 오셔서 전공인 화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슬하에 3남시형(Sean), 재형(Dennis), 주형(Michael)을 두고 계시고, 중앙 2구역에 속해 계십니다.

-정성원/변수연 부부: 정성원교우께서는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일하시며, 변수연 교우님은 현재 Boston Financial Investment Management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슬하에 아들(지오)이 있습니다.

새교우들을 위하여 7월 24일, 김한나/조준호 장로택에서 환영파티를 열어 주셨습니다. 여름철 야외 BBQ 파티를 열어주셔서 새교우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 NCKCP정기총회에서 이영길 목사님



• 1부 찬양대 여름모임



• ” Ruth” workshop



• VBS-hel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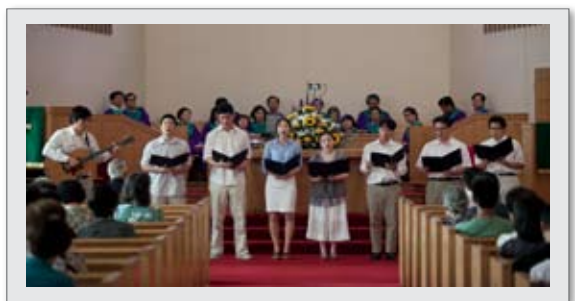
• 유아 세례자



• 성인세례자



• 미동북대회 Gathering



• 콜롬비아 선교팀-파송예배